

2016년도 연구제안서[1] -지정연구과제

제목: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 연구

추진배경: 한국과 일본은 곡물 자급률이 30% 이하인 식량 해외의존국이며 중국은 최근의 경제성장으로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세 나라 모두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식량자급률 제고를 국가적 아젠다로 채택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실천으로 옮겨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은 자체적으로 생명공학 기술을 발전시켜 다국적 기업들의 식량시장 잠식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식량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량생산을 위한 농업, 어업 등 1차산업 정책뿐만 아니라 식량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외교 통상정책, 해양수산 정책, 식품산업정책, 소비자 교육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우리나라 식량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려고 한다. 이 연구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조사연구와 의견 개진이 필요하며 수차례의 식량안보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연구내용:

- (1) 농업분야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 연구
- (2) 수산분야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 연구
- (3) 해외통상분야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연구
- (4) 해양수산분야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연구
- (5) 식품산업분야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연구
- (6) 소비자교육분야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연구

연구방법:

- (1) 재단에서 연구자를 지정
- (2) 연구기간: 2016년 1월 - 12월 (1년과제)
- (3) 연구비: 2,000만원(세미나 개최비 500만원 포함)
- (4) 식량안보간담회 6회, 종합토론회 2016년 10월 개최

기대효과:

- (1)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개발 기초자료 제공

2016년도 연구제안서[2]- 공모연구과제

제목: 세계 식량위기를 해결할 식량생산 신기술 연구

추진배경:

지구온난화와 잦은 기상이변, 동물성식품 소비증가, 식량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확대, 대규모 가축질병의 발생 등으로 세계 식량사정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에 의한 식량 증산 가능성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안전성 우려와 거대 기업들의 특허권 요구로 그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기술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식량생산 방법의 고안이 절실한 때이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미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신기술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종자돈(seed money)을 지원하려고 한다.

연구내용:

- (1) 특허에 묶인 유전자재조합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유전자 조작기술
- (2) 기상이변(가뭄, 침수, 해수)의 피해에 견디는 신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 (3) 식량의 이용효율(가공, 저장, 소비)을 증진하는 신기술
- (4) 식량위기 해소에 필요한 새로운 생명공학, 생물학, 공학 개념의 정립

연구방법:

- (1) 개인 또는 단체의 연구계획서에 의한 공모
- (2) 연구기간: 2016년 1월 - 12월 (1년과제)
- (3) 연구비: 과제당 2,000만원(세미나 개최비 500만원 포함)
- (4) 연구 중간발표 및 토론회: 2016년 8월

기대효과:

- (1) 과학자들의 창의적 노력을 고양
- (2)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실험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3) 우리나라가 세계 식량위기를 해결하는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

작성일: 2015년 11월

작성자: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